

인터뷰

황성택 NH개발 경기북부지사장

“올 매출액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전문성 강화와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



“NH개발은 교육·홍보매체의 제작과 보급을 통하여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CI 전문화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NH개발 경기북부지사 황성택(사진) 지사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농업중앙회, 단위농협, 축협 등의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원주택사업, 일반외주건축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H개발은 1991년 설립 이후 16년 동안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사업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도에는 매출액 1천452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6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사운을 농도상생, 고객행복, 윤리경영, 자기혁신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황 지사장은 경기북부지역의 파주시와 남양주시, 양주시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이며 파주시의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처리기한에 관계없이 신속정확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으로 정년퇴임한 황 지사장은 지난 6월18일자로 NH개발 경기북부지사로 취임해 지난 해 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기북부지사가 올해는 100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청년회 하나 되는 자리

제15회 영북면 기수연합회 체육대회

영북면 기수연합회(회장 김재영)는 10월21일 오전 11시 영북초등학교 대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회 기수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체육대회, 3부 행운권 추첨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은 14개 기수별 선수입장, 국민연례, 내빈소개, 개회선언, 우승기 반환, 우수회원 시상, 대회사, 축사, 선수 선서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수연합회는 그동안 영북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후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기수연합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며 화합하는 체육대회가 되길 바라고 가족간의 사랑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15회 체육대회를 끝으로 기수연합회 자문단으로 남는 최선임 기수인 삼사회에서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2부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여자 축구, 변형계주, 계주, 단체 줄다리기, 훌라후프 오레 플리기를 종목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10월21일 오전 11시 영북초등학교 대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회 기수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을 각 기수별로 진행하여 우승은 팔팔회, 준우승은 백마회가 차지했다.

3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행운권 추첨은 행운권 1매당 1만원에 판매하여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이날 모금한 성금 300만원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연탄배달 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이날 행사 중 14개 기수별 특집을 살린 것발, 유니폼 등을 이용한 선수입장이 눈길을 끌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진행하여 영북면 실질적인 청년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목회단상

위대한 힘

조지몰러 목사(1805-98)는 영국에서 3천명 이상 고아를 돌본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은 분이다.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평생에 성서를 백회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 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2~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생활(靈的生活)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聖經)은 영혼(靈魂)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복(福)과 그 이상의 은혜(恩惠)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敎訓)과 책망(責望)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16~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敎訓)과 책망(責望)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반환 원칙



서희석 대성리(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환 원칙이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 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법으로 몰수된 토지 내지 구채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되, 부득이한 상황이나 또는 사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찍이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독일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구채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 정권 정식 출범 이전의 토지개혁은 물론이고, 1948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및 공산 정권 수립은 모두 우리의 헌법에 반하는 조치들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재산권의 침해는 불법으로 규정되기에 당연히 과거의 재산권을 원상회복시켜야만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단행한 토지의 무상몰수는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때의 불법적인 재산권의 박탈은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법적 정신이 존중되고 있는 법치국에 있어 침해된 재산권 특히 몰수된 토지는 마땅히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즉 재산 가치의 멸실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선의의 제3의 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등의 입지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는 예외적으로 반환 대신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보상의 수행에 있어 가치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토지를 상실하여 경제적 지위가 박탈되기에 통일 후 자본주의의 폐단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가 예상되며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물론, 북한 토지의 원소유자와 현재의 토지 이용자간의 이해 대립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침해 토지의 소유권 정리에 있어 원소유권자의 반환청구권의 인정은 북한 주민을 열등 국민화 시킬으로써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첫째, 토지등기부 등의 멸실과 반환 대상인 농지에 대한 구획 변경 등이 행해졌기 때문에 원물 반환이 현실상 어렵다. 이는 북한이 과거 등기부 소지 행위를 사형 등 엄벌로 다스렸고 지적원부 조차도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반환 청구 폭주와 이에 반대되는 이용자 간의 대립 또 원소유권의 확인 곤란은 소유 관계의 불명확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대립 및 절차상의 곤란은 통일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유발시켜 통일 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또 외국기업 등 투자자들의 대북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원소유자들이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무관심하게 되어 반환된 재산 가치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신규 투자의 위축과 고용의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통일 후 북한 경제 재건에 있어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극 저소득층 자녀 위한 장학사업 추진

포천스리랑카친구들 출범 1주년 기념식 가져

포천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간의 상호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 포천스리랑카친구들이 최근 왕방초등학교에서 출범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0여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참석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문화공연을 가졌으며 포천스리랑카친구들을 지원하는 성공회 포천나눔의집(원장사제 오상운)과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소장 차용호),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무처장 우상열) 등이 참가해 축하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장학회도 발족했다.

스리랑카는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경우 학용품, 가방, 교복 구입비 등 부수적 비용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생계를 위해 학교가 아닌 노동현장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포천스리랑카친구들 공동체는 장학사업을 위해 250여만 원을 모아 회원들이 자신의 출신



포천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간의 상호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 포천스리랑카친구들이 최근 왕방초등학교에서 출범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역 25개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 각 1명씩 모두 25명을 추천 받아 매월 1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스리랑카 노동자 등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차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애정을 가져준 5명의 사업장을 공동체에서 자체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한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들부터 감사패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만큼 인정하고 대우해준 만큼 열심히 일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북청소년예술제

목적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도전 활동의 일환으로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범죄예방활동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간다.

사업개요

- ▶일 시: 2007년11월23일 금요일 17:00~21:00(개회식:18:00)
- ▶장 소: 포천반월아트홀
- ▶참가대상: 9개시군 학생 (참석예상인원 약 1200명)
- ▶주최: 의정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의정부지역협의회
- ▶주관: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
- ▶후원: 포천시 포천교육청 포천시의회 포천경찰서

사업내용

- ▶중·고등학교 글짓기 10대 청소년들의 현실과 창의력발체
- ▶동아리축제 댄스·악기를 다루며 스트레스해소 및 상호 존중심과 일체감 조성효과
- ▶재능보유학생 및 모범생 불우 학생 발굴 모범생포상 불우 청소년 장학금지급



시간계획

- 17:20 ~ 18:00 연예인 및 3 개팀 공연
- 18:00 ~ 18:30 개회식(의정부검찰청 검사장 글짓기입상자 시상15명) (포천시장 포천교육청 포천경찰서장 표창 각 5명) (지구회장 장학금지급 30만원×18명 대표1명)
- 18:30 ~ 21:00 연예인 및 지구별 학생 공연
- 20:40 ~ 입상자트로피 상품수여 경품추첨(검사장 지역회장 내빈)